

“한국계 자랑스러워” ... 헬멧에 태극기 부착한 NFL 선수들

NFL(미풋볼리그)은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리그이다. 100kg가 넘는 거구들이 달리고 충돌하는 이 리그는 매년 시즌 중 2주 동안 선수들이 자신의 헬멧에 미국 국기 외에도 자신의 국적이나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국가의 국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헤리티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NFL은 이런 방침이 “리그를 구성하는 유산, 가족 및 문화를 기념하고 스포츠의 성장 범위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NFL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 NFL 헤리티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헬멧에 태극기를 달고 뛰었던 NFL의 한국계 선수는 모두 6명이다. 이들 중에는 워싱턴 커맨더스팀의 쿼터백으로 유명한 샘 하웰 선수도 있다.



▲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를 붙인 카일러 머리(왼쪽)와 카일 해밀턴의 헬멧. 사진=인스타그램

지난 24일 더풋볼유에스에이(thefootballusa)에 따르면 샘은 친할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선수다. 샘의 할머니는 할아버지 브루스 하웰이 1960년 주한미군이었을 당시 한국에서 만나 결혼했다. 이후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 아들 듀크 하웰을 낳았고 듀크 하웰은 부인 에이미와의 사이에서 2000년 샘을 낳았다.

평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소신을 강조해왔던 샘은 태극기가 그려진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장에 나섰다. 샘은 “항상 가족과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으며, 집에는 항상 한국 음식이 있었다.”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특히 손자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미식축구 경기를 거의 다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정도로, 샘의 할머니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샘은 할머니가 매 경기마다 응원을 외쳤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제 모든 경기를 (할머니는) 지켜보셨다.”고 말했다.

샘은 지난해 11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할머니가 살았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샘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서 “저는 제 배경과 출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저의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



▲ 왼쪽부터 샘 하웰,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 듀크 하웰. 사진=인스타그램

한다.”고 자신이 한국계임을 자랑스러워했다.

NFL에 있는 한국계 선수는 샘 외에도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쿼터백인 카일러 머리(외할머니가 한국인), 애틀랜타 팰컨스의 구영희 선수(부모 모두 한국인, 한국계 NFL 선수 중 유일하게 혼혈이 아닌 선수),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셰이프티 카일 해밀턴(어머니가 한국인), 덴버 브롱코스 소속 가드 루크 와텐버그(어머니가 한국인), 휴스턴 텍선스의 타이트 엔드 브레빈 조던(외할머니가 한국인) 등 총 6명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많은 숫자이다.

박인비,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



▲ IOC 선수위원 후보 면접에 참석한 박인비. 사진=뉴스시스

‘골프 여제’ 박인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9일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선수위원 후보 32명 이름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박인비가 포함됐다. 앞서 박인비는 지난 8월 진종오·김연경 등을 제치고 한국 대표 후보가 됐다. 이후 IOC가 전 세계에서 지원한 후보자 130여 명을 심사했고, 박인비는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총 23명인 IOC 선수위원은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 올림픽위원회(NOC)당 1명으로 제한되고, 임기는 8년이며 일반 IOC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선출될 IOC 선수위원은 4명으로 경쟁률은 8대1에 달한다. 후보 중에서는 여성이 18명으로, 남성(14명)보다 많다.

박인비를 향한 시선은 긍정적이다. AP통신은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 소

식을 전하면서 박인비와 육상 스타 엘리스 펠릭스(미국)를 주요 선수로 언급했다. 이번 IOC 선수위원 선발은 내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1만50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당선자 4명은 IOC 총회에서 IOC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을 확정 짓는다.

만약 박인비가 IOC 선수위원이 되면 역대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의 여성 IOC 위원이란 역사를 쓰게 된다.

	2	6	7		8	9	
1			6			3	
				5			6
	3	1			2		
				4	7		1
7	8			2			
				9			2
9	1	3					
			1	6		5	8

1 전	2 공	3 보	4 좌	관			
	5 연	6 고		총		7 피	
		구		8 우	유	부	9 단
10 싸	구	려		들			칸
라			11 고		12 건	년	방
13 기	14 성	세	대		널		
	과		광		15 목	16 적	
		17 유	실	수		18 도	움